

같이 보기

: 부산 가볼 만한 곳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놀러 오이소~

부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바다이다. 그중에서도 부산 바다의 정석으로 불리는 곳은 단연 해운대 해수욕장이다. 여름은 물론 사시사철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한 번쯤은 머무르다 가는 해운대 해수욕장. 다른 어떤 곳보다 다이내믹한 부산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장소다.

글 박민승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경남지역본부 사내기자



해운대 해수욕장은 당연히 여름이라는 계절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 여름이면 천만 명이 넘는 피서객들이 이곳을 찾기 때문이다. 1.5km 길이의 백사장을 중심으로 오락시설과 부대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국적과 나이를 불문하고 해수욕과 태닝을 즐기려는 외국인부터 휴가를 보내기 위해 모여드는 피서객까지 여름의 해운대는 전국적인 핫 플레이스가 된다.

해운대 해수욕장의 백사장을 따라 걷다 보면 고즈넉한 동백섬이 자리해 있다. 과거에는 육지와 떨어진 섬이었으나 현재는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동백섬 내부는 동백해안산책로가 말끔히 정비되어 있으며 제13차 APEC 정상회담 회의장인 누리마루 APEC 하우스가

자리하고 있다. 푸르게 우거진 숲을 지나 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는 풍경을 바라보며 가볍게 걷기 좋다.

해운대 해수욕장의 풍경은 밤이면 더욱 매력적으로 바뀐다. 동백섬 어귀에 위치한 더베이101에서 바라보는 마린시티 풍경은 빼놓지 말아야 할 코스다. 마천루의 불빛이 밤바다에 비치는 장관은 황홀하다. 더베이101 내부에는 식사를 비롯해 간단히 맥주를 즐길 수 있는 식당도 갖춰져 있어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매년 5월~6월이면 해운대 바다의 모래들은 ‘해운대 모래 작품 전시회’에서 예술작품으로 재탄생한다. 세

계의 모래 예술작가들이 모여드는 큰 축제인 만큼 볼거리가 풍성하니 여름이 오기 전에 해운대 해수욕장을 방문해 보는 것도 괜찮다.

부산을 방문했다면 해산물이 빠질 수 없으니 제철 해산물을 싱싱하게 만날 수 있는 포장마차촌, 전통시장을 가봐야 한다.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이다 보니 가격대는 높은 편이므로 사전에 가성비 좋은 음식점을 찾아두자. 저녁 식사를 마칠 때쯤 주말에 구남로 문화광장에서 열리는 공연행사가 있으니 인근을 지나갈 계획이 있으면 놓치지 말고 챙겨보자.

한 여름 뜨거운 태양이 조금 부담스럽다면 해운대 해수욕장의 또 다른 명소인 부산 아쿠아리움을 방문하는 것도 괜찮다. 여러 터널 수족관을 지날 때는 마치 바닷속을 가로지르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고개만 돌리면 대형 상어가 바로 옆을 유유히 지나가고 이름 모를 물고기가 떼를 지어 그 뒤를 따르기 때문이다. 관람 온 아이들의 감탄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수족관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메인 수조에서는 대형

해양생물들을 비롯해 시간대별로 다양한 공연을 만날 수 있다.

그 외에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 청사포라는 포구가 있는데 여기에는 다릿돌 전망대와 해변관광열차가 있다. 다릿돌 전망대는 투명 바닥을 통해 바다 위를 걷는 짜릿함을 맛볼 수 있는데, 유리에 흠이 나지 않도록 안내소 입구에서 덧신을 신고 입장한다. 전망대 끝에는 망원경이 있어 바다 전망을 더욱 실감나게 즐길 수 있다. 해변관광열차는 해운대 미포~청사포~송정에 이르는 4.8km 구간의 동해남부선 옛 철도 시설을 재개발하여, 해안 절경을 따라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해운대 해수욕장은 많은 놀거리, 볼거리로 가득 차 있기에 모든 걸 다 소개하기엔 부족함이 있다. 아직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면 이번 여름에는 방역 수칙을 지키며 부산의 명소인 해운대로 휴가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 🐼



※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운대 해수욕장 관련 시설 이용 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해운대구청 및 관련 업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